

학사제도를 비교·분석한다 ②

복수전공제 효율적 강의 운영 필요

다양한 학문 접근 기회로 학생들 인식 전환돼야

경영대 소속 학과의 전공 수업이 진행되는 L 동 강의실은 늘 빼곡히 들어찬 학생들로 발디딜 틈이 없다. 전공 학생 뿐만 아니라 복수 전공 수강생들이 몰려 강의의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소위 인기학과라 불리는 영영영문학과나 신문방송학과와 같이 컴퓨터 실습실에서 진행되는 수업은 추가 배정이 불가능해 결국 강사를 초빙, 반반했다.

전공수업을 정정하는 학생들이 많다"며 "홍보를 통해 이러한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는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복수전공이 활성화되고 있는 다른 대학들도 본교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지만, 일부 대학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눈길을 끈다.

서울여대의 경우 영영영문학과 등 지원이 집중되는 일부 전공수업에 한해 각각 전공자와 복수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좌를 따로 개설했다. 이로 인해 복수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업은 제한된 강좌 안에서 개설하다보니 대부분 강의가 100명이 넘게 수강하게 됐지만, 주전공자들의 불편은 최소화 되었다. 또한 서강대의 경우 수강신청 전에 학생들의 수요를 미리 파악해 시간과 인원을 조율하고 있다.

그러나 복수전공에 따른 문제에는 단기적 해결책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영학과 권익현 교수는 "복수전공이 취업을 위한 하나의 필수코스가 아닌 관심있는 분야의 학문을 두루 배울 수 있는 기회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양한 전공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복수전공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학생들의 인식전환이, 가깝게는 학교측의 지속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도영 기자
circus@dongguk.edu

서울·경주 직원인사발령

본교는 지난 12일 직원 인사를 발령했다. 서울캠퍼스는 △공무처 학사지원실=변민우 △공무처 학생선발실=김홍호 △연구처 연구개발팀=주성재 △연구처 연구지원팀=김광희 △사무처 총무팀=박훈선 △사무처 시설관리팀=이권학 △교육대학원 교학부=김종백 △사범대학 교학과=김영진 △야간강좌교학과 교학과=이은희 △체육실 체육부=김영수 △중앙도서관 학술정보서비스팀=이광휘가 임명됐다. 경주캠퍼스는 △기획처 대외협력팀=최현익 △사무처 총무팀=박두관 △법정대학 교학과=류인수 △한외과대학 교학과=김종진 △의과대학 교학과=김차일 △사회문화교육원 교학과=김한경이 임명됐다.



민중의 외침 ... 2001년 제 3차 민중대회가 지난 15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공원에 모인 민중들은 한 목소리로 구호를 외치며 결의를 다졌다. 엄태규 기자 smail11@dongguk.edu

일본 삿포로학원대학 연수생 인터뷰

“학생교류로 양국관계 개선됐으면”

지난주 한번쯤은 동아에서 남다른 차림을 한 10명의 학생들을 봤을 것이다.

본교와 일본 삿포로학원대학간 학술문화연수에 참여한 일본 학생들이다. 지난해부터 시행해 온 연수는 양대학을 방문해 일정기간 홈스테이와 수업참여·토론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자리가 됐다.

지난 13일 다양한 세미나실에서 서로의 문화에 대해 토론하는 일본 학생들을 만나보았다.



한·일 학생들이 서로의 사진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 일본 학생들은 한국문화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 최근 일본에는 한국문화 열풍이 불고 있다. 특히 비빔밥, 닭갈비 같은 음식과 한국 목욕문화 등이 유행하고 있다.

키무라 가쿠모(20) 군은 자우림, S.E.S 등 한국 가수들의 이름을 외우며, 족석에서 임창정의 '나의 연인'을 부르기도 했다.

- 한국 학생들을 만나면서 문화적 차이를 느끼지는 않았는지.

= 홈스테이를 하면서 가족문화를 접했는데 일본과 달리 아버지의 권위가 높아 보였다. 하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겉으로만 보이는 모습뿐이라는 것을 알게됐다.

- 2002년 월드컵을 공동으로 개최하게 됐는데 단독개최를 놓쳐 섭섭하지 않았는지.

= 공동개최를 통해 양국간 관

계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단독개최보다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월드컵을 계기로 교류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대화 중 오노데라 히로키(20) 군은 "월드컵 자원봉사를 신청했다"며 어깨를 으쓱했다. 히로키 군은 "일본도 한국처럼 월드컵 자원봉사 경쟁률이 치열했다"고 말했다.

- 일본역사교과서 문제로 한국에서는 일본문화개방이 중단되기도 했다. 일본 대학생들은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우선 그 문제 때문에 한일 간 문화교류가 중단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일본에서 이번에 문제가 된 역사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는 1%에 그치고 있고, 대부분 학생들이 역사교과서는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학교 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이라는 타카하시 아이카(23) 양은 "중학교 선생님이 되면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겠다"고 말해 모두에게 박수를 받았다.

- 앞으로 한일간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학생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 이번 학술문화교류 같은 상호 교류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한일간 문화를 이해하고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이번 연수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양국 학생들은 한일간 문제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듯 어느새 가까운 친구가 되어 있었다.

김현정 기자
tellme@dongguk.edu

서울캠 교수회 정기총회 개최

연봉제·교원업적평가 등 학교측과 질의응답

교수회(회장=심익섭·행정학) 정기총회가 오는 19일 5시 덕암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총회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는 교수신분과 관련된 내용을 주제로 △연봉제를 김준성(회계학)교수가 △교원업적평가를 김무봉(국어국문학)교수가 발제하고, 해당처장인 최순열(국어교육) 연구처장, 정용길(정치외교학) 기획인사처장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2부는 내년 총장선출준비위원회 구성과 연봉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교수회 심익섭 회장은 "내년부터 본교도 연봉제가

시행되는 만큼 연봉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토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원님 1억원 기탁 일산병원 건립기금으로

인양암 주지 종원님이 지난 11일 일산병원 건립기금으로 1억 원을 기탁했다.

또한 같은 날 익명의 불자가 일산병원 건립기금으로 1억원을, 불심홍법원 하도명와 이사장이 5천180만원을 기탁하는 등 일산병원 건립기금 기탁이 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연구 우수교원 선정

저서 연구비 지원자도

연구교류처(처장=최순열·국어교육)는 연구 우수 교원을 선정해 발표했다.

인문사회·자연·예체능·의학 계열별로 지난해 연구비 수주실적이 우수한 교수를 선정한 결과 △이영재(정보관리학) △홍유표(전자공학) △황상주(미술학) △이완(의학)교수가 수상하게 됐다.

또한 저서·번역 연구비 지원자도 선정됐다. 이번 지원대상에는 '불교와 종교철학'을 쓴 김용표(불교학) 교수를 비롯한 저서부문 6명, 번역부문에는 홍윤기(철학) 교수를 포함한 3명이 선정됐다.

연구 우수교원과 저서·번역 연구비 지원자 시상식은 오는 20일 연구처장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지면안내

☞ 우리 문화는 있다 7면

우리문화 살리기 3회 기획중 마지막인 '우리문화는 있다'.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우리 문화를 되살리려는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 진정한 우리문화를 찾아 떠나본다.

☞ 언론개혁 어디까지 왔다 4면

☞ 한·일 역사 바로잡기 5면



폭력은 안된다

남 선 (불교방송 보도국 사회문화부장)

태초 지구는 그냥 불덩어리였다고 들었다.

불덩이는 식어 땅이 되고 생명의 모태인 물이 생긴다. 땅은 갈라졌고 과학자들은 판구조론이라는 이론으로 그것을 설명한다. 생명이 탄생한다. 인류 문명이 시작되고 그 근저에 종교가 자리잡는다. 인류는 민족으로 갈리고 종교적, 민족적 통합과 갈등을 쌓아가며 오늘에 이른다. 미국에 대재앙이 일어났다. 영화적 상상력을 넘어섰다. 자연이 만든 것이 아니라 문명의 주체라는 인간들이 연출했다. 그동안 쌓아온 갈등의 판으로 불덩이를 만든 것이다. 미국으로 대표되는 서구 문명은 분노하며 재앙의 저쪽에 이슬람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한때는 객들 사이에 회자됐던 허버드대 교수인 사무엘 헌팅턴의 문명충돌론이 관심을 끌고 있다. 아직은 모른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다.

"문명은 궁극적으로 인간 부족주의를 바탕으로 하며 문명의 충돌은 세계적 규모로의 부족적 갈등이다" "1천4백년이나 지속되어온 이슬람과 기독교간 갈등에 비하면 20세기 자유민주주의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갈등은 피상적인 것에 불과하다"

불만이 있다. 갈등이 폭력을 통해 표출되고 폭력으로 갈등의 업을 이어가려 한다는 것이다. 잘못된줄 알면서도 묵인하고 방조하고 더 나아가 동조하고 있다. 비 불교적으로 가고있다. 아마 세상이 불교를 알지 못하는 듯하다. 일체중생 개유불성(一切衆生 皆有佛性)... 이 세상에는 풀잎 하나에도 부처님이 있으니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생각조차도 없는 듯 하다. 폭력속에 묻히고 있는 화해와 상생을 위하여 범구경의 한 구절을 외워본다.

"모든 생명은 폭력을 두려워한다. 모든 생명은 삶을 지극히 사랑한다. 이를 깊이 알아서 죄 없는 생명을 함부로 죽이거나 죽이게 하지 마라"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다른이의 행복을 침해한다면 그는 결코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없으리라."

발전기금 ARS 7000-119

동대신문 기획광고

길고 짧은 건 '돼' 봐야 합니다

컴퓨터실에서, 화장실에서
무작정 기다리기 답답하지 않나요?

요행수와 기회주의가 숨어있던 줄서기 ...

'한줄서기' 는 정직합니다.

동대신문사

언론개혁은 현재진행형이다

품질·왜곡된 지면, '스크린'이 나섰다

영화인, 조선일보 반대선언
안티조선운동 생생히 담은
'옥천전투' 상영하기도

'컷(CUT)!' 영화인들이 조선일보를 향해 외친 소리다. '박하사탕'의 이창동 감독, '집속'의 장운현 감독, 영화배우 명계남씨를 비롯한 77명의 영화인들과 푸른 영상, 빨간 눈사람 등 30여개 독립영화단체는 안티조선일보 운동에 동참할 뜻을 밝히고 영화배우 권해효, 영화감독 황철민, 부산국제영화제 김동호 집행위원장 등은 지난 12일 남산 감독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 독립영화협회를 중심으로 20일간 영화계 인사들의 서명을 받아 이루어진 이번 성명은 대중성과 상업성을 지니고 있는 영화계가 특정 신문 반대운동을 벌였다는 점에서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성명에서 이들은 지난 친일 행적에 대한 반성은 커녕 반공이데올로기를 이용해 현실을 왜곡하는 조선일보의 곡필과 만행을 규탄하는 한편 구독거부와 인터뷰·기고 거부 등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확실히 했다.

또한 현재 영화 제작비의 삼분의 일 정도가 광고비로 지출되어 신문에 막대한 자금을 지불해 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영화계의 자성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부산국제영화제 김동호 집행위원장은 "영화나 신문은 대중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막대하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몇 십년간 끼친 조선일보의 영향력은 JSA, 쉬리 등 어떠한 대형 흥행작에도 비할 바가 못 된다"며 영화인으로서 안티조선일보 운동에 참가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공식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에는 총

북 옥천에서의 안티조선운동을 담은 황철민 감독의 '옥천전투'가 상영됐다. 옥천은 지난해 8월 15일 조선일보로부터 '독립' 하려는 33인의 옥천지역 '독립군'들이 모여 '조선바로(조선일보 바로 보기 모임)'를 출범시키고 지금까지 조선일보 절독운동을 펼쳐온 곳이다.

이를 다큐멘터리로 만든 세종대 황철민(영화예술학) 교수를 만나 '옥천전투'가 갖는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보았다.

- 안티조선 운동 다큐멘터리를 찍게 된 이유는.

= 대학 시절부터 대안매체로서의 영화에 관심이 많았다. 영화라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언론을 대신해 사회적 진실을 대중에게 쉽게 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이런 맥락에서 언론개혁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영화로 만들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극영화로 만들기 위해 시나리오 작업도 꽤 했는데 다른 사정으로 중단했다가 작년 '말'지에서 옥천에 대해 읽고 신선하다 싶어 찍

계속되는 언론의 횡포

언론사주와 간부들이 주로 소속되어 있는 국제언론협회(IPJ)와 평가자 모임인 국제기자연맹(IFJ)은 한국 언론상황을 조사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결과를 각자 발표했다. 그리고 지난 6일 IPJ의 기자회견을 자세히 보도한 조중동이 7일 있었던 IFJ의 '언론 개혁지지' 기자회견은 작게 보도해 편파보도 시비에 휘말렸다. 조중동이 약속이나 한 듯이 '언론 스스로 개혁'을 강조한 것은 언론사 세무조사가 언론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주장하려는 의도다.

뿐만 아니라 지난 8.15 평양축전 관련 보도에서도 이들의 왜곡보도는 극에 달했다. 평양축전 기간 동안 우리 언론은 8월 16일자 한국일보 '왜 이런 방북 허가했나'에서도 나타나듯이 방북단의 내분과 돌출행동만을 주목했다.

그리고 임동원 장관의 해임을 놓고 9월 5일자 조선일보는 보수적인 외신을 인용해 "해임건의안 가결은 한국 정부가 '대북퍼주기'를 하고 있다는 한국민 대다수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이에 대한 반격으로 보수 신문에 공세를 펼쳐 3개 신문사주들을 탈세 혐의로 구속했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언론자유가 벼랑끝으로 몰리고 있다는 IPJ와 지속적인 언론개혁을 강조하는 IFJ, 그리고 자신들의 입장과 같은 주장을 집중적으로 기사화하고 있는 한국의 주요일간지들. 이제 언론개혁과 언론탄압을 둘러싼 공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언론개혁의 방안을 고민할 때이다.

주저없이 뛰어들었고 1년 여만에 300부를 넘는 큰 성과를 보였다. 이를 통해 현재 우리의 운동에 결여되어있는 '공동체적 실천'의 힘을 보여주고 싶었다.

- 앞으로의 계획은.

= 아직도 개발만능주의에 연연해 자신들의 사회적 기반을 유지하려는 현재 한국의 기득권층 모습을 털 건설과 새만금 개발문제 등을 통해 담아가고 싶다.

(송) itsU@dongguk.edu



손석춘기자 초청 강연회

언론 개혁 첫걸음은 편집권 독립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가 공개되고 탈세 언론사주들이 구속되면서 언론개혁에 대한 국민과 대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지난 14일 학림관 3층 교육매체센터에서는 '우리 언론의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주제로 손석춘(한겨레신문사 여론매체부장)기자의 강연이 열렸다.

강연은 한국 언론사의 구조, 편집권의 문제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그는 "기자가 쓴 기사가 편집국과 사주의 손을 거치면서 처음과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며 사주의 이해 관계에 따라 기사의 성격이 변하게 되는 한국 언론사 구조상의 문제에 대해 비판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막대한 힘을 갖고 있다

고 인식되는 언론사의 힘은 엄밀하게 말하면 언론사 사주들의 힘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언론사도 재벌처럼 세습되는 체제이기 때문에 기자의 역할을 해본 적이 없는 사주들이 인사를 무기로 신문에 자신의 이해 관계를 적용시키는 일이 벌어진다"며 사주들의 편집권 문제

를 지적했다. 실제로 과거 동아일보 편집국장이었던 김중배(현 문화방송 사장)씨가 사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신문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진) yearn@dongguk.edu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은 예를 들며 어느 순간부터 기자가 기사를 쓰면서 사주의 이해관계에 대해 신경을 쓰게 되어버린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1999년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발족한 이후 정기 간행물법의 입법을 위한 노력이 계속 되고 있지만 사주들의 반대와 야권의 반대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는 말로 언론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강연이 끝난 후 질의응답이 오고가는 가운데 문화계(사회과학대 1)양은 미국의 테러 사건에 대해 한국 언론이 미국 언론의 보도를 그대로 해석해서 쓰는 것을 꼬집어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손석춘 기자는 "한국 언론이 오랫동안

안 가지고 있던 친미적 성향이 여실히 나타난 사례"라며 항상 비판의식을 갖고 보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한겨레신문의 편집권 문제에 대한 물음에는 "한겨레신문사는 투표에 의해 사장이 정해지며 사장은 편집권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총 책임자 격인 편집국장 역시 기자들의 직선투표로 뽑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 yearn@dongguk.edu

동요로 점수 따기



지난 14일, 동아에 난데없는 사이렌이 울려 퍼졌다. "이게 무슨 소리지? 오늘이 민방위 훈련 날인가?" "아니, 오늘 14일이야. 요즘에도 민방위 훈련 때 사이렌이 울리나?" 학생들을 의아하게 만든 것은 미국 테러사건에 대한 정부 대응 때문이었다. 정부는 미국 테러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기 위해 14일 전국의 모든 관공서와 학교에서 조기를 게양하고 오전 10시부터 1분 동안 추모 묵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본교 홈페이지 '나의 주장'에는 이에 대한 불만 섞인 의견이 줄을 이었다.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이런 참사가 일어나도 이렇게까지 했겠는가." "삼풍백화점 붕괴, KAL기 추락 사건 때도 이런 일은 없었다." 법적으로 조기게양일은 현충일, 국장기간과 대등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 상의 반응만 봐도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무르익은 것 같지는 않다. 테러로 희생된 민간인에게 애도의 뜻을 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개인의 감정에 맡겨두어도 될 일을 국가 차원에서 '애도의 날'로 지정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인다. "현 상황은 전시 상태다. 예고 없이 응징을 가하겠다." 요즘 매일같이 일간지 1면을 장식하는 미국 부시 대통령의 말이다. 미국은 테러 세력에 가혹한

보복을 선언했고 이는 세계적인 불안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경제에 미칠 타격이 우려되며 최근 재개된 남북 장관급 회담에도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주도해 '감정적 쇼'를 벌이기보다는 향후 정세에 대한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우정현 기자 caesar2000@dongguk.edu

2002학년도 해외 자매대학 교환유학생 선발

- 1. 파견기간 : 2002. 3. ~ 2003. 2. (1년)
2. 해당대학별 선발인원 및 지원자격

Table with 4 columns: 해당국, 해당대학, 인원, 비고. Lists exchange student programs for various countries like USA, Japan, China, and Korea.

* 공히 학부과정 평점평균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외국인 및 재외국민 특례입학자는 제외

- 3. 파견조건 가. 본교측
1) 파견기간 중의 등록금을 본교에 납부하여 재학생 신분을 유지해야 하되, 본교 장학금 선발규정에 의거한 해당자에 한하여 해당학기 등록금의 35%를 장학금으로 감면함.
2) 파견기간 중에 취득한 교과목의 명칭·학점·성적은 최대한 동일하게 적용하고, 이수구분 등 동일한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학과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학과 주임교수가 결정하며, 학점인정 범위는 해당학과 졸업학점의 1/4까지로 함.
* 석·박사과정의 경우는 대학원 관련규정에 따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제교류실(☎ 02-2260-3876, 본관 2층)로 문의 바랍니다.

나. 해당대학측

Table with 3 columns: 해당국, 해당대학, 비고. Lists requirements for exchange students from various countries.

- 4. 전형방식
평가구분: 학교성적(25%), 일반면접(50%), 어학능력(25% - 인증서 제출시 가산점 부여)
일본어권: 학부과정 서울·경주캠퍼스 평점평균, 공동평가 (JLPT 2급 이상 또는 JPT 600점 이상)
중국어권: " " (HSK 6급(중등 C급) 이상)

- 5. 신청서류 가. 해외 자매대학 교환유학생 지원신청서(소정양식) 나. 재학증명서 다. 성적증명서(학부과정 성적 포함) 라. 어학능력시험 인증서(소지자에 한함)

- 6. 전형일정 가. 원서교부·접수 : 2001. 9. 10(월) ~ 9. 28(금), 국제교류실 나. 면접 : 2001. 10. 5(금) 14:00 ~ , 국제교류실

해외 자매대학 독일어연수

- 1. 연수대학 : 독일 레겐스부르크대학 (University of Regensburg)
2. 연수기간 : 2002. 6. 15(토) ~ 7. 27(토) (6주)
3. 연수내용 : 중급 문법·독해·회화·음성학 학습 (월~금, 6시간씩)
4. 연수인원 : 최대 15명
5. 연수경비 부담내역 가. 수업료 : 면제 (레겐스부르크대학 부담) 나. 숙식비 : 연수생 자비 부담 다. 항공료 : 본교 부담
6. 학점인정 : '해외 독일어연수' 3학점 (단, 학부과정 재학생에 한함)
7. 신청자격 : 본교 학부 및 일반대학원 석·박사과정의 재학생 또는 휴학생 (단, 졸업예정자는 제외함)
8. 선발회정 : 관련 선발위원회의 사정에 의해 최종 선정
9. 신청서류 가. 해외 자매대학 독일어연수 지원서 (소정양식) 1부 나. 재학증명서 1부
10. 지원서 교부·접수 : 2001. 9. 10(월) ~ 10. 12(금), 국제교류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제교류실 (본관 2층, ☎ 2260-3876)로 문의 바랍니다.

제16회 추계명찰순례

바람결에 스쳐가는 들꽃 내음과 눈부신 햇살 위로 높아만 가는 하늘을 보며 어느 새 가을이 성큼 다가 온 것을 느낍니다. 황금 들녘을 바라 보는 농부의 넉넉함처럼 여유와 나눔의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함께 떠납니다. 파아란 냇물과 흰 바위 그리고 산 빛나무의 가을 향기가 그윽한 곳 충청남도 공주시 마곡사로의 기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1. 순례일자 : 2001. 9. 21(금) ~ 9. 22(토) <1박2일>
2. 순례장소 :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마곡사
3. 참가대상 : 전 동국인(45명) - 선착순으로 접수함.
4. 참가비 : 오천원 (₩5,000)
5. 접수기간 : 2001. 9. 11(화) ~ 9. 19(수)
6. 접수처 : 본관 3층 학생복지실 (☎ 2260-3048)
7. 출발일시 및 장소 : 2001. 9. 21(금) 오후 4시 정각원 앞

한·일 역사 바로잡기

불완전한 국사교육, 나침반 없는 항해

현대사 왜곡·축소 기술 등 ... 역사적 진실 당당히 밝혀야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로 한반도가 떠들썩할 때, 미국의 '로스앤젤레스타임스' 신문은 "한국에서도 일제부역자, 미군범죄 문제 등과 관련한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왜곡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나라에 일침을 가했다.

현재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은 '국사' 과목의 교과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역사를 총체적으로 배운다. 그러나 이 중 가장 최근의 일을 기록한 현대사 부분은 분단이라는 특수한 국가적 상황 아래 단편적으로 축소해 기술된 경향이 많다는 지적이다. 전반적으로 일어난 사건만을 선별해 나열하거나, 역사적 의미가 큰 사건임에도 그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과 의의·영향조차 제대로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 국사교과서의 문제점에 대해 성균관대 서종석(한국현대사) 교수는 계간 '역사비평'에서 △정부·관 중심의 서술 △극우 권위주의 정권 미화 △반공·반북 이데올로기에 의한 제약 △애국·부정확한 기술과 오류 등을 지적한 바 있다.

현행 중·고교 국사교과서는 교육부에 저작권이 있고 국사편찬위원회 1종도서 연구개발위원회에서 편찬한 것이다.

이른바 정부 주도아래 만들어진 '국정교과서'인 셈이다. 국정교과서는 정권의 정당성·합법성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역사를 기록해야

하는 잠정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특히 현대사의 경우, 이해관계가 얽힌 인물들이 생존해 있는 상황에서 올바른 역사 평가의 목소리를 내기란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본고 한철호(역사교육학) 교수는 "바른 역사교육이 행해져야 청소년들이 스스로 역사적·사회적 존재임을 깨닫고 사회 구성원으로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라' 이슬리엘에 전해져 내려오는 격언이다. 이 말에서는 지난 역사의 수 많은 시련과 압박을 겪으면서도 오늘날 세계에서 일지를 굳건히 한 민족의 강인한 의지가 느껴진다. 이에 비해 우리는 어떠한가. 용서할 수 없다, 그러나 잊어버렸다 아마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먼저 우리 역사교육의 현실을 진단하며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의 부당함을 말하고자 한다.

편집자



서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역사교육은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해주는 나침반이며, 청소년들은 역사를 통해 현재의 과제를 발견하고 분별하여 가치를 판단하는 안목을 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실시되는 제7차 교육과정에는 '근현대사'라는 선택과목이 신설될 예정이다. 또한 전국역사교사모임에서는 '대안교과서'를 준비하고 있다.

근현대사를 국사와 분리해 선택과목으로 지정할 것은 오히려 근현대사를 말리하게 할 시책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이러한 움직임들은 역사에 대한 기록이 새롭게 쓰여져야 함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동호지필(董狐之筆).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실을 그대로 적어 역사에 남기는 일을 뜻하는 말이다.

누구보다도 교과서 집필을 담당하는 역사학자들에게 필요한 말이기도 하다. 그러나 올바른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비단 역사학자들만의 몫은 아니다.

우리 모두가 과거와 현재를 올바르게 진단하고 역사를 바로 세울 때,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역사적 진실을 밝힐 것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수경 기자 papaya@dongguk.edu



벼(稻)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식 식물이면 벼는 벼, 나라 및 쌀 등으로 불리지는 화본과에 속하는 1년생 초본식물이다. 밀 다음으로 생산량이 많아 세계 인구의 약 50%가 주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벼 식물과 비슷한 야생식물은 그 수가 상당히 많아 이 중에서 10여종만이 벼에 속하는 'Oryza' 식물이라고 한다. 이들은 열대아프리카와 아세아 남부 기타 호주 등에도 분포하고 있으며 그 원산지는 인도지방이라는 설이 지배적이다.

현재 우리가 많이 가꾸고 있는 벼 식물은 매우 많은 품종으로 분화되어 있으며, 알이 길쭉하고 껍질이 적은 인도형 벼 식물은 주로 열대지방에서 재배된다. 알이 둥글고 껍질이 많은 일본형 벼 식물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도지방에서 재배되는 식물로 분류할 수가 있으며, 논에서 재배되는 수도 식물이 주축을 이루지만 밭에서 재배하는 육도식물도 있다.

벼의 학명은 'Oryza sativa L.'로 열색체 수는 2n=24이고, 기타 벼속식물의 열색체 수는 24이거나 48개라고 할지라도 genomics로서의 특성이 상이하다. 이는 Oryza sativa와는 다른 벼에 속하는 식물들 상호 교배를 실시해 봐도 교잡이 곤란하거나, 혹시 교잡이 일어나도 그 잡종이 불임이 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세계 각지에서 널리 재배되고 있는 벼는 Oryza sativa에 속하는 야생벼 식물로부터 기원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 인간이 재배하고 있는 벼 식물 품종은 야생벼 식물과 비교하여 벼 때 비정상적인 기형 식물로 변한 것이다. 이는 우리사람에게 필요한 부분 즉, 곡립만 크고 많이 수확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품종을 개량해 신품종 식물을 보급해 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단위당 수량은 대단히 많아졌으나 반면 각종 병충해에 대한 저항성은 일반적으로 감소하여 재배자의 치밀한 보호관리 없이는 정상적인 벼 식물의 생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 벼를 재배하게 된 것은 중국으로부터 전래되어 건국당시부터 벼가 재배된 것으로 보고 있다. 벼 식물을 포기하는 한문자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벼도자인 도(稻)는 벼화(禾)번이 있고 이는 최상등의 곡물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도(稻)는 벼의 껍질을 제거한다는 뜻으로 도정을 의미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의 주식인 쌀을 생산해 내는데 쌀 미자의 미(米)는 쌀알들을 만들려면 88번의 사람손이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벼라는 식물이 우리 인류에게 배운 유익한 점은 쌀이 주식량, 양조용, 떡, 과자, 엿, 풀감 등에 사용되고 쌀겨는 비료, 사료, 약용, 유지원료, 장유, 과자, 단백질제조 및 양염재료 등 다양하게 이용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벼질은 각종 가축의 사료, 오양기, 이영잇기, 연료, 섬, 가마니, 새끼, 명석 및 제지원료로 사용하는 등 인간생활의 각 분야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되는 필수불가결한 유용식물이다.

고교 국사교과서 왜곡 사례

4.3 제주 민중항쟁



"제주도 4.3 사건은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의 5.10 총선거를 교란시키기 위하여 일으킨 무장 폭동으로서, 진압 과정에서 무고한 주민들까지도 희생되었으며, 제주도 일부지역에서는 총선거도 실시되지 못하였다." (196쪽)

- 4.3 항쟁은 3.1절 기념집회에 참석한 시위군중을 향해 경찰이 총을 쏜 것이 도화선이 되어 발생한 사건이다. 나아가 미군철수, 단독선거반대, 애국자 투옥석방 등의 슬로건을 내걸고 우리나라의 자주성과 생존권을 지키려 했던 제주민들의 항쟁이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교과서는 어떠한 배경설명도 없이 4.3 항쟁을 '공산폭도들의 반란'으로 매도해 왔다.

또한 당시 민중학살과 인명피해에 대한 내용이 미흡하다. 그리고 5.10 선거는 사실상 유격대와 자위대의 협동작전으로 제주도에서의 단독 선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주도의 투표참여율을 70%라고 허위로 조작한 통계를 공식 발표하기도 했다.

5.16 군사정변



"사회적으로는 자유만을 주장하면서 자체할 줄 모르는 일부 국민들의 과도한 욕구분출로 시위가 계속되었으며 ... 장면내각은 정치력을 발휘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대통령에 당선된 박정희는 군사정부에 의해 추진

되었던 주요 과제들을 대부분 그대로 실천하려 하였다. ...조국 근대화의 실현을 국정의 주요목표로 삼았으며 급속한 경제성장을 우선적인 정책으로..." (204~205쪽)

- 장면 정권 시기의 혼란과 장면정권의 무능을 강조하면서 5.16 군사정변이 발생했던 당시 제2공화국의 평가를 격하시키고 있다. 이는 5.16 군사정변의 역사적 필연성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박정희 정권의 '경제안정과 수출증대 계획'을 강조하면서 박정희 정권이 옹호되는 방향으로 해석되도록 다소 주관적인 논조로 기술돼 있다.

전체적으로 군사정권의 당위성과 활동을 소개하는 수준에 머무른 사건 본질의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다.

5.18 광주민중항쟁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의 요구는 광주에서 비롯된 5.18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졌다 (1980). 이 때 민주헌정체제의 회복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진압군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으며, 이 과정에서 다수의 무고한 시민들도 살

상되어, 국내외의 충격을 안겨주었다." (207쪽)

- 당시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국회가 해산되고 모든 정치·노동활동이 중단되었다. 민중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열망으로 전두환 정권의 무차별 탄압과 총살에 이반했다. 배경설명이 부족한 이 사건 역시 민중을 상대로 군부집단의 탱크와 무기 동원, 공수부대의 잔혹성, 전쟁터를 방불케 했던 당시 대규모 학살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들은 밝히지 않고 있다. 5.18 항쟁은 민중 스스로가 미국과 군부독재의 정체를 폭로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크다. 하지만 교과서는 다른 사건에 비해 적은 부분을 할애해 그 비중을 축소시켰다.

<하>

sellyone@dongguk.edu

고쳐라, 이제는 세계가 주목한다

바로 선 역사교육 위해 국내외 연대활동 필요

2001년은 한일간에 있어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로 어느 때보다도 시끄러웠던 해이다.

한일관계사학회는 이미 작년 10월 '일본의 역사 왜곡과 교과서 검증'이라는 타이틀로 일본의 시민단체인 '어린이와 교과서 전국네트 21'의 도와라 요시후미 사무국장과 함께 긴급 심포지움을 개최한 바 있다.

당시만 해도 정부나 언론에서는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의식한 때문인지 이 문제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는 듯 했다. 그러나 올해 문제의 일본 역사교과서가 통과될 가능성이 많아지자 정부나 언론에서도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정부도 점차 강경해지기 시작했다.

정부와 학계, 시민단체 등이 여러 경로를 통해 압박과 항의를 계속했지만 결국 문제의 교과서 통과를 저지하는 데는 실패했다. 한국정부에서는 급히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책반을 가동해 최종적으로 25개 항을 수정하도록 요구했지만 철저히 무시되었다.

다행히 현재 일본에서 이 교과서를 채택한 곳은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택률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는 우리 정부나 민간의 대응 외에 일본내의 교과서 불채택 시민운동의 성과가 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교과서 도입의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와 같은 일이 언제 다시 재발될 지 모른다. 이번 일본 역사교과서 파문 과정을 지켜보았지

만, 특히 근대사 서술의 경우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사실을 근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에게 아무리 조목 조목 정정을 요구해도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은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고, 또 교과서의 내용 중 특정 부분은 학계에서도 여러 가지 시각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수정안을 제시해도 일본이 시각 차이라고 수정을 거부하면 그만이고, 더구나 대다수 일본인들이 역사왜곡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로 보인다. 결국 이런 방식으로는 부족한 대안이 없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한국정부는 일본으로 하여금 과거 식민지 지배의 부당성을 인정시키고 과오를 청산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 한편, 민간이나 연구기관의 교과서 연구 등을 적극 지원하고 국제사회에 한국의 주장을 홍보하는데 치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의 시민단체나 양심적인 일본인들로 하여금 일본 정부의 이와 같은 시도를 저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번에도 보았지만 결국 문제의 왜곡 교과서가 채택되지 못하게 된 데에는 일본 내부의 시민단체·학계의 활동이 무엇보다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학술 및 민간단체는 일본 단체 및 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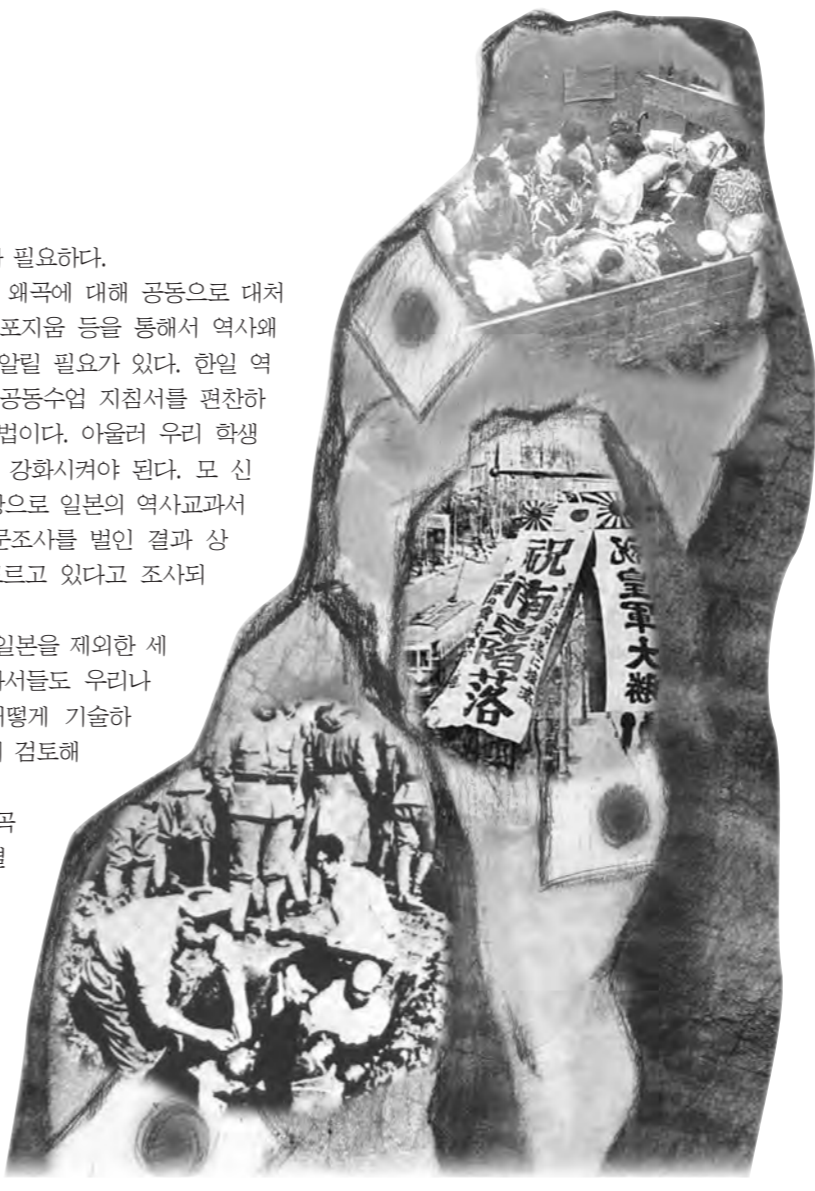
아 주변국과의 연대가 필요하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고 동시에 국제 심포지움 등을 통해서 역사왜곡의 진상을 세계에 알릴 필요가 있다. 한일 역사교과서들의 토론 및 공동수업 지침서를 편찬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다. 아울러 우리 학생들에게도 역사교육을 강화시켜야 된다. 모 신문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상당수의 학생이 잘 모르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또한 이번 기회에 일본을 제외한 세계의 다른 나라 교과서들도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는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

일본의 교과서 왜곡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더구나 일본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만으로는 전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김세민
한일관계사학회
총무이사



고수동정



▲임돈희(사학)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Spain Elch에서 열리는 UNESCO 세계 무형문화유산재상 선정을 위한 심사에 참가할 예정이다.

'정부정책...개선방안' 세미나

경주지역 지역정책연구소(소장=박병식·행정학)는 서울행정학회와 NGO 공동주최로 오는 21일 오후 1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부정책의 미비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가진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정책 분석과 평가의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로 △수도권 정책의 개선 방안(이성복·건국대 행정학) △공적자금의 실태와 보완방안(전주성·이화여대 경제학) △교육인적자원부의 BK21사업 실태와 미래(박부권·본고 교육학) 등을 발표한다.

역사문제연구소 토론타담 개최

역사문제연구소(소장=서종석)는 '제10회 역문연 토론타담'을 개최한다.

'교과서 서술에서 기억을 둘러싼 갈등과 현재·독일과 폴란드,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라는 주제로 토론하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교과서 문제를 다른 나라들의 사례와 비교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오는 21일 오후 6시 30분에 역사문제연구소 2층 강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달하나 천강에

‘한류열풍’ 의미



김영철
인문대
중어중문학과 교수

중국은 국토가 넓고 인구가 많아 통치하기 여간 어려운 나라가 아니다. 한(漢) 나라 이후 중국의 통치자들은 그 해법을 유교에서 찾았다. 그 이후 유교를 핵심으로 하는 전통 문화는 중국 사회와 중국인들의 사고에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사회를 안정시키는데 감점이 많았던 유교는 효율이 증시되는 현대 산업 사회에는 맞지 않게 되었다.

중국은 현대 사회에 맞는 새로운 정치 이념으로 공산주의 이념을 선택하게 된다. 중국 공산당은 사회의 모든 조직에 당원을 배치하여 당 조직으로 중국을 통치하는 한편 중국인들의 의식을 사회주의로 개조하려 온갖 노력을 다했다. 그들은 문화를 개조하기 위해 전통문화를 부정하고 비판했다. 모택동이 문화대혁명(1966-1976)을 일으킨 것이나, 1919년 신 지식인들이 5.4 신문화 운동을 일으킨 것 등은 중국의 통치자나 지식인들이 중국의 모든 문제가 궁극적으로 문화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을 심도 있게 이해하려면 중국 문화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 중국에서 한류열풍이 분다고 한다. 한국의 TV연속극이 중국에 방영되자 큰 호응을 받으며 한국의 젊은 연예인들이 중국 젊은이들의 우상이 되고 있다. 왜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중 하나는 중국인들이 그동안 사회주의 혁명을 거치면서 잃어 버렸던 그들의 전통문화를 다시 발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예를 들면, 가부장적 한국 가정을 코믹하고 인정미 넘치게 그린 ‘사랑이 뭐길래’라는 드라마에서 중국인들은 감동과 향수를 느끼고, 애정문제에 있어서 사상(과거)과 경제적 능력(현재)이 무엇보다 강조되는 중국 상황 속에서 순수한 감정을 중시하는 한국 젊은이들의 사랑이야기는 너무나 신선한 충격인 것이다.

그리고 무언가 답답한 중국 사회에서 폭발하고 싶은 젊은이들에게 한국 젊은 가수들의 격정적인 춤과 노래는 그들의 마음을 해방시켜 주는 것이다.

이제 한국과 중국은 문화적으로 활발한 교류를 시작했다. 한중 수교 10년을 맞는 이때 불어오는 ‘한류 열풍’은 두 나라의 교류가 보다 심도 있게 발전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두 나라의 문화가 보다 광범위하게 교류되길 기대해 본다.

합작, 앙코르제국의 앙코르는 싫다

제작과정에 적극 참여 · 우리 문화의 자주성 바탕으로 해야

‘다국적’이란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베트남 쌀국수와 이탈리아 스파게티를 파는 다국적 레스토랑부터 동일한 스타를 좋아하는 이유만으로 국경을 초월해 형성된 다국적 팬클럽까지.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 공연예술계에도 다국적 바람이 일고 있다. 바로 두 나라 이상의 제작자가 공동 제작하는 ‘합작’이란 형식을 통해서 말이다.

최근 개봉을 앞둔 영화 ‘봄날은 간다’는 이러한 합작의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이 영화는 해외자본의 분산투자와 외국배우 출연이라는 단순한 합작형식에서 벗어나 기획단계부터 철저한 ‘연대’를 이루고 제작과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또한 한·러 합작 뮤지컬인 ‘일곱 난쟁이와 백설공주’는 서커스와 뮤지컬을 합한 형식의 공연으로 국내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볼거리를 제공했다. 또한 극단 미추와 일본의 스바

루 극단이 함께 제작한 ‘히바라 키-400년의 초상’은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 도공들의 이야기를 다룬 연극으로, 미묘하고 복잡한 한일 역사문제를 잘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밖에도 영화 ‘명성황후’가 미국과 합작 조인식을 갖고 내년 7월 중 촬영에 들어갈 예정이며, 각 방송사들도 해외 합작드라마를 준비중이다.

현재 ‘합작’은 우리 문화 발전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문화산업 제작비에 대한 부담이 줄고, 우수한 해외 기술과 인지도 높은 배우를 기용, 안정된 해외배급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명성황후’나 ‘히바라 키-400년의 초상’과 같은 작품들은 우리의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또한 합작극과 자연스런 문화교류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국 최재근씨는 “우리 문화를 세계에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인 반면 “우리 문화의 제반조건이 해외합작을 받아들이기에 아작은 미흡한 것 같다”고 말한다. ‘합작’은 참여국끼리 서로 다

른 문화적 차이와 시각을 어떻게 조율하는가가 관건이다. 어느 한 국가의 문화적 시각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각 문화의 전통을 바탕으로 조화롭게 어울려야 하는 것이다. 이에 캐나다나 유럽의 국가들은 정부간 협정을 맺고 있거나 우리나라는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준비돼 있지 못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제작진이 합작과정에서 얼마만큼 주도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민족예술인총연합의 한 관계자는 영국의 제레미 아이언스와 중국의 공리, 홍콩의 장만옥이 출연한 영화 ‘차이니스 박스’를 예로 들며 “합작이 자칫 고유문화를 파괴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며 “우리 것을 기본으로 할 때 ‘합작’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지난날 앙코르 와트라는 웅장한 건축물을 건설할 만큼의 막강한 국력을 지녔던 캄보디아의 잊혀진 제국 ‘앙코르’가 왜 갑작스럽게 멸망했을까. 전문가들은 문화적 고유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태국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미국과 일본 문화를 너무나도 익숙하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합작’이 우리 문화발전엔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까. ‘앙코르 제국’의 환영이 떠오르는 요즘, 무엇보다도 우리 문화의 자주성이 중요시되는 때이다.

이성희 기자
mong2@dongguk.edu



자주성 래민수식

Fearless Dawn 공연



서울권 락 밴드 동아리 피어리스단이 아홉 번째 정기공연을 갖는다. 이번 콘서트는 조당산 밴드의 메탈, 레이디버드의 모던 락, 죽석복권스크랩터의 펑크 등 다양한 장르의 락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락의 열정과 열기에 취해 일상의 지루함을 잊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오는 19일 오후 8시, 학림관 소강당에서. 문의 011-246-1035

2001 방송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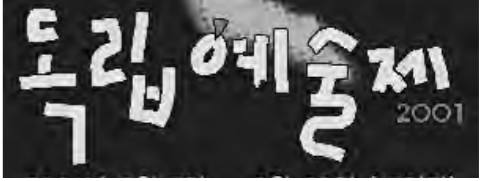
경주권 교육방송국이 ‘2001 방송제’를 연다. ‘너희가 내 속을 아느냐!’라는 테마로 진행될 이번 방송제는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상처들과 그 상처를 안고 사는 이들의 속마음을 그려낸다. 아름다움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프로그램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생생한 영상물을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오는 20일 오후 8시, 원효관 소강당 1에서. 문의 (054)770-2471

‘아시아 블루’ 시사회

문화연대는 식민지배와 침략전쟁 사실에 대한 일본의 반성을 담은 영화, ‘아시아 블루’를 오늘(17일)부터 21일까지 아트선재센터에서 상영한다. 상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내 수입에 어려움을 겪었던 ‘아시아 블루’는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세상에 알려진 영화로, 한일관계를 재조명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시사회는 오후 1시30분, 3시40분, 5시50분 그리고 8시 등 4회에 걸쳐 상영되고, 초대권은 문화연대 사무실에서 직접 배부한다. 문의 773-7701

안티조선문화제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대학 신방과 연석회의 등 조선일보를 반대하는 대학생들이 연세대에서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안티조선문화제’를 개최한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문화제는 학생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안티조선 릴레이 강연회, 다큐멘터리 상영전, 거리선전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통해 안티조선운동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운동개발방향을 모색한다. 문의 3142-0700



특이함이 오히려 평범함으로 다가오는 ‘특별한 날’이 있다. 지난 7일부터 오는 23일까지 17일 동안 계속될 ‘특별한 날’은 바로 올해로 4회 째를 맞는 ‘독립예술제2001’.

인문대학의 메카인 흥익대학교 일대에서 열리는 독립예술제는 공간과 축제의 어울림으로 어느 때보다 한층 성숙된 모습이다.

‘인디...밤새도록 한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번 독립예술제는 고성방가(음악), 내부공사(미술·전시), 암중모색(독립단편영화), 이구동성(무대예술), 중구난방(거리예술)의 다섯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그 중 암중모색은 실험정신과 도전정신이 두드러져 눈여겨볼 만하다.

젊은 문화예술인을 발굴해내기 위한 대안적 축제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프린지(번두리, 주변)’를 한국적으로 실험하고 모색하는 축제의 지향점도 프로그램 곳곳에서 보여진다.

문화반란을 꿈꾸는 이여 유클한 난장으로 오라

행사진행 자원봉사자 서영옥씨는 “독립예술제는 다른 문화행사와는 달리 심사나 선별을 거치지 않은 자유로운 작품을 그대로 선보이고 있다”며 “프로수준의 작품에서 아마추어나 저수준 작품까지 다양한 시도와 실험성을 엿볼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놀이터, 지하보도 심지어 동사무소에 이르기까지 색다른 공간에서 다채롭게 선보이는 내부공사나 중구난방 프로그램도 시선을 끈다. 평소에는 단순히 아이들의 놀이공간이거나 지나가는 길, 사무적 공공기관으로 여겨졌던 공간에서 전시와 공연의 대안공간을 경험할 수 있다.

독립예술제가 해를 거듭함에 따라 분야와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언더문화’에 대한 인식을 넓혀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반 대중들이 가까이 하기엔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서는 축제분위기를 느낄 수 없을 만큼 진행 상황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을 비롯, 계획한 바와 달리 서교파출소 등 일부 장소에서 갑자기 전시가 취소된 점은 전시장을 찾은 이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허점으로 지적된다.

아직까지 아쉬움이 남는 부분도 있지만, 젊은 대안문화를 통해 한발씩 행진하며 진정한 ‘문화반란’을 꿈꾸는 ‘독립예술제’. 평범함에 지루함을 느낀다면 지금, 흥대 앞으로 가서 독립예술의 반란에 함께 동참해 보는 것은 어떨까.

<리>
hviolet@dongguk.edu

매체비평

광고편

SK텔레콤 '사람과 사람'

"기업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속임수일 뿐"



현재 SK텔레콤이 집행중인 캠페인의 '힐체어 농구', '수녀와 스님' 편.

요즘엔 광고가 확대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 광고란 원래 TV를 시청하는 시청자들이나 신문 잡지를 읽는 독자들에게는 썩 달갑지 않은 존재이다.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기 위해 광고는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게 된다.

많은 광고 중에서 기업이미지 광고는 제품광고와는 차별화된다. 제품광고는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을 설득하려는 메시지를 사용하게 되고, 현대의 영악한 소비자는 이런 메시지에 쉽게 설득 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업이미지 광고는 직접적인 제품을 판매하는 메시지가 아니다. 기업이미지 광고는 말 그대로 기업의 이미지를 제

고하기 위한 광고이다. 호감가는 기업의 이미지를 창출하려는 것이 목적이니 소비자 입장에서 훨씬 거부감이 덜하다. 물건을 사려는 강요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편안하게 광고를 볼 수 있는 것이다.

SK 기업이미지 광고 '사람과 사람'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캠페인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자전거를 탄 수녀가 스쳐 지나간 비구니를 뒤에 태우고 그림 같은 시골길을 달리는 장면은, 삭막한 현대를 살아가는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자아내기에 충분할 것이다. 연이어 집행된 '엄마와 아들' 편이나 '힐체어 농구' 편도 같은 톤 앤 매너(tone and manner)를 유지함으로써 메시지의 일관성을 높이고 SK텔레콤이라는 기업의 이미지 구축에 큰 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각박한 경쟁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인간미를 느끼게 해주는, 잔잔하면서도 감동을 주는 광고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SK 광고에 큰 호감을 가지고 있지만, 과연 이 광고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기업들은 왜 제품을 직접적으로 판매하는 제품광고 이외에 이런 기업이미지 광고를 집행할까? 대답은 간단하다. 기업이미지 광고가 제품의 판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때문이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창출이다. 이 목적에 의해 기업은 이윤창출 이외의 목적으로 돈을 낭비하지 않는다. 기업이미지 광고는 따라서 장기적인 이윤창출을 위한 수단일 뿐 전혀 다른 의도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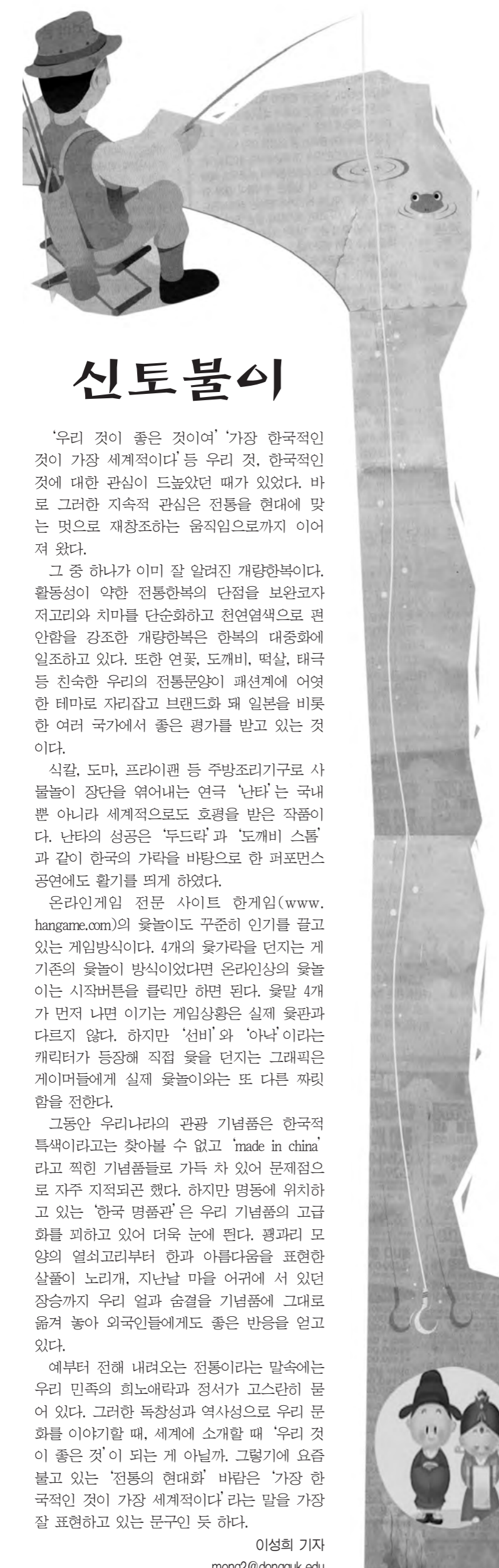
SK텔레콤이 이런 광고를 집행한 이유가

정말 더불어 사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착각하지 말자. 만일 정말로 만약에, SK 기업광고가 진정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란 한다면, 단연코 그 이유는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면 SK의 판매가 증가하고 이윤이 창출되기 때문이다.

냉정한 눈으로 광고를 보자. 결국 우리들은 제품을 구매하면서 광고비용까지 더불어 지불하고 있는 것이니가. 이동통신료가 비싼 이유가 이런 기업광고비용까지 모두 통신요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광고속의 수녀와 비구니가 그렇게까지 감동스러워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전영우
인천대 신방과 교수

우리 문화는 있다



신토불이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등 우리 것, 한국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드높았던 때가 있었다. 바로 그러한 지속적 관심은 전통을 현대에 맞는 것으로 재창조하는 움직임으로까지 이어져 왔다.

그 중 하나가 이미 잘 알려진 개량한복이다. 활동성이 약한 전통한복의 단점을 보완코자 저고리와 치마를 단순화하고 천연염색으로 편안함을 강조한 개량한복은 한복의 대중화에 일조하고 있다. 또한 엿꽃, 도깨비, 떡살, 태극 등 친숙한 우리의 전통문양이 패션계에 어엿한 테마로 자리잡고 브랜드화 돼 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식칼, 도마, 프라이팬 등 주방조리기구로 사물놀이 장단을 엮어내는 연극 '난타'는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호평을 받은 작품이다. 난타의 성공은 '두드락'과 '도깨비 스톨'과 같이 한국의 가락을 바탕으로 한 퍼포먼스 공연에도 활기를 띄게 하였다.

온라인게임 전문 사이트 한게임(www.hangame.com)의 윗놀이도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방식이다. 4개의 윗가락을 던지는 게임의 윗놀이 방식이었다면 온라인상의 윗놀이는 시작버튼을 클릭만 하면 된다. 윗놀이 4개가 먼저 나면 이기는 게임상황은 실제 윗놀이와 다르지 않다. 하지만 '선비'와 '아나'이라는 캐릭터가 등장해 직접 윗을 던지는 그래픽은 게이머들에게 실제 윗놀이와는 또 다른 짜릿함을 전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관광 기념품은 한국적 특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made in china'라고 찍힌 기념품들로 가득 차 있어 문제점으로 자주 지적되곤 했다. 하지만 명동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 명품관'은 우리 기념품의 고급화를 꾀하고 있어 더욱 눈에 띈다. 꿩다리 모양의 열쇠고리부터 한과 아름다움을 표현한 살풀이 노래개, 지난날 마을 어귀에 서 있던 장승까지 우리 얼과 숨결을 기념품에 그대로 옮겨 놓아 외국인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이라는 말속에는 우리 민족의 희노애락과 정서가 고스란히 들어 있다. 그러한 독창성과 역사성으로 우리 문화를 이야기할 때, 세계에 소개할 때 '우리 것이 좋은 것'이 되는 게 아닐까. 그렇기에 요즘 불고 있는 '전통의 현대화' 바람은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말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문구인 듯 하다.

이성희 기자
mong2@dongguk.edu

한 나라의 문화는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대변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갈수록 문화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그 나라의 특색있고 개성적인 문화를 창출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새 외국 문화에 길들여져 우리 것보다 외국이 더욱 우월하다고 생각하며, 더욱 세련된 것인양 치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문화가 바탕이 되지 않은 가운데 무차별적으로 수용한 외국문화는 우리 문화를 퇴색시키고 황폐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된다.

이에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문화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우리 문화를 살리고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3회에 걸쳐 '우리 문화 살리기' 기획을 준비했다.

1. '문화식민지'로 전락하다
2. 일본 문화가 물러온다
3. 우리 문화는 있다

편집자

'되살리기'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문화'는 죽었거나, 혹은 고사 직전이다. 문화란 경제나 정치와는 달라서 쉽게 죽거나 파괴되지 않지만, 한번 파괴되면 오랜 시간동안 복구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다. 때문에 문화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가려는 일관된 노력이 중요하며, 보이지 않게 서서히 몰락의 길을 걸을 때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자취를 감춘 우리 전통이야

오늘날 우리 문화가 이처럼 고사의 위기에 몰린 것은 죽음의 뒤안길에 들어섰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찌해 볼 수 없었던 근현대사의 특수성에 기인한다. 필자는 우리 문화가 고사 위기를 맞은 원인을 두 가지로 규명한다. 하나는 서구에 의한 근대화의 강제 이식이고, 다른 하나는 박정희 군사 독재정권이다.

서구에 의한 강제적 근대의 이식은 일제 식민지의 경험과 더불어 반만년 동안 우리의 숨결을 이뤄왔던 삶의 양식을 송두리째 뒤엎어버렸으며, 그로 인해 농촌공동체를 기반으로 해 왔던 전통문화는 파괴되거나 외래 주류문화에 그 자리를 내주게 되었다.

또한,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은 '미신 척결'이라는 비합리적 명분을 내세워 삶의 방식을 서구적 근대의 기준에 맞게 표준화 시켜버렸

다. 이른바 '가정의례준칙'으로 대표되는 문화적 파시즘으로 인해 그나마 겨우 명맥을 유지하던 우리 전통문화는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이처럼 자취를 감춘 전통문화의 자리를 대신해 온갖 잡다한 외래문화들이 쫓겨고 들어섰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국 문화이며, 그 다음이 일본 문화이다. 맥도널드와 할리우드로 대표되는 미제국주의 문화는 우리 문화를 미국 중심의 서구적 질서로 재편하면서 그 위력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떨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공동체 문화에 기반한 정의주의(情意主義)적 생활양식을 영위하지 않으며, 미국적 서구문화와 거의 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

미국 문화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세계가 미국 중심의 문화로 획일화될 때, 그 부정성은 만만찮은 것이다. 문화란 다양성의 기초 위에서 꽃피며, 획일화될 때는 파시즘 사회로 가는 지름길을 제공한다. 다양한 문화에서 발원하는 다양한 생각들이 사회 발전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문화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민족문화를 살려라

그렇다면 우리 문화를 되살릴 방법은 무엇인가.

우선 전통에 대한 현대적 해석이 중요하다. 아무리 전통문화가 소중하다고 떠들더라도 동시대 사람들이 그것을 귀중하게 생각하거나, 되살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통문화 혹은 민족문화가 우리 민족의 삶에 녹아 있는 문화적 DNA임을 각인시키는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

더불어 전통 민족문화를 오늘에 되살리려는 다양한 개인과 단체를 지원하고, 전통 민족문화의 현대적 의미를 연구하는 것에도 각별한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 예컨대 김덕수 사물놀이나 마당극처럼 아직도 우리 핏줄 속에 녹아 흐르는 가락을 일깨우면서도 현대인의 감수성에 적합한 문화적 행위들을 발굴하고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 그럴 때만이 전세계에 문화적 우수성을 알릴 만한 문화적 행위양식이 발굴되고,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이 한 차원 더 넓어질 수 있다.

또 하나, 전통 민족문화를 오늘에 되살리는 것은 근현대사 속에서 응축된 민족적 모순들을 제거하려는 노력과 맞닿아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가장 큰 민족모순인 분단을 지양하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될 때, 전통 민족문화의 현대적 계승도 온전히 그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성배
민족예술인총연합 정책기획팀장

함께하는 남과 북, 이보다 좋을 수 없다

누군가는 우리 문화가 이미 사라지고 말았다고 전한다. 그러나 이렇게 단정지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축기가 끈끈한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를 찾아 떠나는 남과 북의 문화, 이것은 우리문화가 아직 살아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아침의 햇빛이 아름답고 곱다고 우리의 이름을 조선이라 불렀다' 북한에서 불리고 있는 '조선의 노래' 중 일부문이다. 우리의 이름을

조선이라고 불렀다는 구절은 역시 '남과 북은 하나'라는 정한 감동을 전해준다. 그렇다. 남북문화는 하나다. 오래 전부터 남과 북의 문화는 하나의 뿌리를 타고 이어 내려오고 있었다.

그러나 이 속에서 어두운 분단시대에 살아남은 남북의 민족생활사를 발굴하고 하나로 묶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바로 남북의 동질성은 생활사를 통한 '민족의 부활'로 이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북한에 있는 '우리식 문화'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름'보다는 '같은'을 강조하면서 우리 문화

의 동질성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흔히 시대가 변하면 생활양식이 변하고 풍습도 변하기 마련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남북은 대포적으로 명절과 성묘문화라는 공동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민족동질성의 회복은 '같은'을 향한 남북문화 교류에 큰 힘을 실어주고 있는 셈이다.

남북 문화예술인 500여명은 얼마 전 오는 10월 비무장지대에 모여 '2001 평화촌' 행사를 가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민족동질성을 찾아 나서겠다는 이들의 만남이 통일추진 파문과 군사정전위원회 중립국들과의 협의에 부딪쳐 난항을 겪고 있다. 남북문화예술교류가 지금까지 정지된 상황에서 흔들리는 것은 지속적인 문화교류를 가로막는 일이다. 유홍준 교수도 북한문화유산답사기에서 이 부분을 "북한 답사기를 쓸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고도 남북한의 미묘한 관계 속에서 출타기해아만 하는 아슬아슬한 상황이 부담스러웠다"고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인간적 교감과 민족적 동질성을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그는 무엇보다 우리민족의 삶 법세를 전하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남북문화교류의 현실이 반갑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남북문화교류에 긴장을 늦추는 것도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이제 남한의 문화민을 우리 문화라고 이야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우리 삶에는 북한문화의 모습이 그대로 비춰지고, 그들의 문화에서도 우리 문화가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는 민족동질성을 찾아 하나의 문화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김지혜 기자
wisdom@mail.dongguk.ac.kr



이성희 기자
mong2@dongguk.edu

메아리 시계(時計)와 시계(是計)

▲7시 기상, 9시 수업시작, 12시 점심식사..... 우리 일상에서 '시계'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 필수품이다. 어떤 일을 하든 그 기준이 시간을 경계로 분할되니 '시각'을 나타내거나 시간을 재는 기계나 장치인 시계는 우리 생활에서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시계가 표시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과거, 현재, 미래가 결정되니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힘을 지니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6월, 서울시가 덕수궁 옆 캐나다 대사관 신축부지의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얼마전에는 옛 배재고 터에 러시아대사관이 완공되었으며, 미대사관이 정동길 주변으로 이전을 꿈꾸며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 최근 정동길 주변 역사경관 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덕수궁-정동제일교회-옛 러시아공사관'으로 이어지는 정동길은 '근대역사박물관'이라 불려도 될 정도로,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

건물인 정동제일교회와 이관파천 장소인 옛 러시아공사관 등 개화기시대의 다양한 건축물과 역사현장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러한 정동길 주변의 역사적 중요성이나 문화적 가치에 대한 인식없이, 외교통상부의 '우리 정부가 97년 캐나다 오타와시에 대사관을 신축할 때 캐나다로부터 과학적인 법적 예외조치와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으나 상호주의적 외교관행으로 용도변경을 허용해달

라'는 요청을 수락한 것이다. 지난 97년 서울 최초의 '결고싶은 거리'를 정동길로 지정하고, 2000년에는 4대문안 역사·문화탐방로로 정동길을 선정할 것도 서울시일터인데, 그 때 선정된 의미와 가치는 전혀 기억하지도 고려하지도 않은 채.

▲시계가 우리 일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과거, 현재, 미래를 한 공간 속에서 묶어 내듯, 정동길 주변지역 역시 같은 공간 안에서 그것이 안고 온 역사와 현재에

서 보존하려는 그 가치들을 미래로 연결시켜 그 빛을 발산케 하는 것이다. 때문에 서울시는 정동길 주변의 가치를 절대 잊어서 안되며, 그 역사적인 공간을 지키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서울시는 정동길 주변에 대한 재고찰과 함께 캐나다대사관 신축에 대한 입장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표영연 문화부장
pisk20@dongguk.edu

소나기

동아리, 발만 동동 구르는 이유



△돈이 없어서.
△재미없으니까!
△자기네끼리 노니까.
△나도 동아리 만들고 싶다.
△다른 학교는 공개모집도 하는데, 호지부지 하더라.
△신입부원이 안 와여.ㅠ.ㅠ
△수업듣기 바쁘고, 출석한 번 빠지면 큰일나고 저녁엔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오늘에 대충! 동아리 활동이 어려운 것은 어쩔 당면지사!
△국선도 신입부원 모집!
△요새 애들이 개인적 생활을 많이 해요.
△동아리 안가고 친구 많다.
△작년, 그리고 올해 자주 달라진다.
뭔데 자기가 필요해야 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조금 씩씩한 기분이 든다.
△동국관에서 살면 학관이 너무 멀다.
그래서 소모임 간단.
△동아리도 변신이 필요하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개인화 되어간다는 의미가 아닐까.
△사회변화로 혼자 놀 수 있는 것도 많이 나오고 인터넷에서도 쉽게 사람들을 사귄 수 있다는 게 한 몫 한 것 같다.
△사람들이 왜이리 없지?
동아리 매력 있는데...
△신입생 위주의 모집, 친목보다는 썩기 등이 학우들의 발을 들리게 하는 듯.
△동아리! 술 먹으러 들었나? 공부 좀 해.
△동아리다운 동아리 찾기 힘들어~
△동방이 없어요, 있어도 썩어요!!
△대학생활의 낭만을 느낄만한 동아리가 없다.
△그래도 인기있는 동아리는 꼭 있다.
△동아리, 그들만의 색깔을 찾아야 한다.
△술만 마시고 놀기만 하니 애들이 있나~
△난 동아리보다 내 사생활이 더 중요해!
△참을성 없고, 끈기 없는 학생들이 빛어낸 결과.
△늘기만 좋아하는 학생들은 동아리의 참 맛을 모른다.
△21세기 대학생, 20세기 동아리!

'선재스님의 조리강좌'가 준 깨달음

삶이 풍요로워지면서 가식과 탐욕이 더해만 가는 시대가 되고 있다. 음식 역시 순수함을 잃고 현란한 맛과 편리함이 그 자리를 대신해 간다. 그러나 지난 학기 선재스님의 강좌는 선재스님의 맛은 음식에 대해 소홀히 해 왔음을 반성하게 해주었다.
 땅 위에 사는 벌레 뿐 아니라 땅 밑에 사는 미생물까지 훤히 상할까 봐 더운물도 반드시 식혀서 버리라는 선재스님의 가르침은 작지만 내 주변과 자연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라고 생각한다.
 생존을 위한 필수인 공기의 소중함을 단지 흔하다는 이유로 잊고 살 듯이, 오

늘날 편리를 위해서라면 자연을 마치 연장처럼 함부로 이용해도 좋다는 생각이 팽배하고 있다. 이런 때 선재스님의 가르침은 이기심을 해소해 주는 청량제가 될 것이다. 조미료와 양념을 쓰지 않고도 좋은 맛을 내기 위해서는 세세한 정성이 필요하다. 한가지 매혹적인 맛이 다른 깊은 맛들을 지배하지 않게 하면서 원재료의 풍미를 최대한 살린 음식의 맛은 원래 이랬나 할 정도로 순수한 것이다.
 선재스님과 조리강좌는 좋은 사람들과 정답게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자연의 맛을 찾아가는 순수로의 여행이었다.
 김수원 (경영대 경영4)

어울리지 않는 '경대교' 이름 바꿔야

지금 동대병원 앞에는 서전을 가로지르는 '경대교' 확장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준공 예정일은 2003년 1월로 이 공사는 우리 학교 숙원사업의 하나이다. 다리가 확장되면 캠퍼스 앞의 상층적인 교통정체도 풀릴 것이고 자전거 도로가 개설될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다 많은 학생들이 선전동까지 걸어 다닐 수 있어 무척 반갑고 기대되는 일이다.
 이 다리의 지금 이름은 '경대교'이며 경주캠퍼스가 조성된 후 건설되었다. 다리 건너 경북대학교나 경주대학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다리 이름이 '경대교' 일까 라는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지금은 우리 캠퍼스를 자타가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라고 부르고 지역사회에서는 동국대학교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데 초창기

이 캠퍼스는 동국대학교 내 하나의 단과 대학으로서 동국대학교 경주대학이었다. 약칭하여 경주대학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런 연유로 다리 이름이 '경대교'로 명명되었다. 그 후 동국대학교는 서울캠퍼스와 경주캠퍼스로 나뉘고 경주캠퍼스는 부총장을 두게 되었다. 이제 경주캠퍼스가 2개 대학원과 7개 단과대학으로 크게 성장한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다리를 확장하는 때에 맞춰서 학교 당국은 경주시청과 상의해 다리 이름도 새롭게 바꾸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리 이름은 '동국대교'가 좋을 것 같고 '동대교'도 고려해 볼직하다. 이렇게 다리에 어울리는 제 이름을 붙이는 것이 동국인의 긍지를 찾는 길일 뿐 아니라 우리 캠퍼스를 홍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김진재 (인문대 국사학과 교수)

봉사활동 범위에 제한 두지 말았으면

2학년 2학기가 된 지금, 나는 대학생활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다. 그래서 친구들과 주말에 봉사활동을 하기로 했다. 이유는 봉사활동을 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의미있는 일이 될 것 같았고 학기말 장학금 신청서를 낼 때에도 봉사활동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모로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복지 단체를 알아보던 중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는 언니에게 참사람 봉사단에 들지 않고 개인적으로 하는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장학금 신청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장학금 신청 때문에 봉사활동을 결심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것은 다분히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봉사단에 가입해 봉사활동을 하는 것과 가까운 복지 센터에서 개인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차이점이 있

는 것일까? 봉사단에 가입하면 세시간 정도의 교육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봉사활동의 주의점이나, 방법 같은 실질적 교육이 아니라 봉사활동의 의미에 대한 내용을 듣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규정은 자율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의도와는 달리 형식적이며 봉사활동의 범위에 제한을 두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봉사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면, 형식보다는 자율성에 맡기고 작은 힘이지만 사회에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홍희진 (상경대 경영2)

열악한 실습실 개선 필요

미술을 공부한 나에게 불교조각은 새롭고 기대되는 분야였기에 좋은 환경 속에서 나의 재능을 맘껏 발휘하고 싶어 이 과에 들어왔다. 그러나 나의 기대가 점점 꺾이게 된 것은 4년 동안 실습실 전 공실의 열악한 환경을 보고 나서였다.
 입학할때는 다른 계열 학생들에 비해 많은 등록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구분이 없어 더욱 그러했다.
 과가 신설된 지 2년밖에 안되어서인지 시설 면에서 타 과보다 아주 열악하다. 실기가 수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예능계열에선 좋은 환경이란 교육의 필수 요건이다. 그러나 타 미술학과에 비해 우리 과는 낙후된 환경인 가건물에서 작업을 한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가건물에서 작품활동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날씨가 추워진다면 작업하기가 힘들어 질 것이다. 다음 신입생들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미술실을 지원금이 확보돼 환경개선을 노려야 할 것이다.
 동국대 불교미술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학교 관계자들은 투자와 관심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차화선 (인문대 불교조각1)

『지나호 동대신문을 읽고』

균형 갖춘 기사 요약

주제 기획에서 한국의 한 독재자를 신과 빗대어 독재자의 '그릇된 신념'과 '신의 허영심' 모두를 비판한 점이 좋았다. 또한 마치 연극의 대본을 읽는 듯한 문체는 자칫 지루해지기 쉬웠던 주제를 독자들에게 쉽게 전달하는 좋은 방편이 되었다.
 하지만 기사가 박정희라는 인물에 대해 지나치게 비판적인 시각을 전제로 해 독자들에게 그것을 주입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히 보였다. 만일 이 기사에 "나는 새마을 운동이라는 것을 벌여 국민에게 삶의 의지와 희망을 불어넣었다.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활력을 제공해주고 '살맛'을 준다는 거. 신이 아니겠는가?" 식의 잠정으로서의 그의 면모 역시 보여주었다면 저널리즘의 균형성과 공정성 모두 지키는 좋은 기사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진용훈 (사과대 신방2) 정인교 (상경대 국제통상3)



(제1326호 9월 10일자)

단편적 시각 벗어나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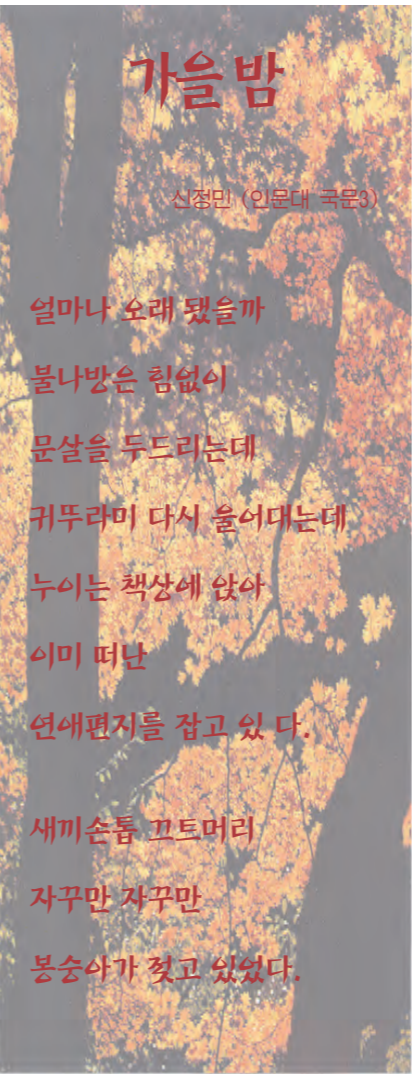
매체비평의 '무사'는 한국영화에 힘을 실어준다는 취지는 이해되나 비평의 알맹이가 없다. 아래 일본문화가 물려온다는 글 또한 창조적 코드가 없다. 우리문화가 그렇게 외국문화에 저물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바.
 재생산되고 혼합된 변종들이 무수히 탄생하고 있다. 외국문화 수입의 직접적인 폐해를 말하는 건 소위 옛날 얘기다. 즉 테마번의 글은 너무 일차적인 진단에 머물고 있다. 현재 무수히 제가 공되는 변종 문화들의 옳고 그름을 짚어 보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정인교 (상경대 국제통상3)

핸드폰 에티켓 아쉬운 때

2학기가 시작되기도 벌써 3주일이 지났다. 덥고 길던 여름방학 때의 생활습관이 어느 정도 없어지고 다시 시작된 학교 생활에 익숙해지는 모습들이다.
 두 달만에 본 학생들의 2학기를 시작하는 모습은 처음 1학기 때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 든다. 물론 끝모습도 많이 성숙하고 변했지만 그 안에 있는 2학기에 대한 기대와 각오가 진지하다.
 하지만 그런 모습 안에 아직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바로 수업시간에 울리는 핸드폰 벨소리이다.
 수업 시간 전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데 우리는 그 작은 에티켓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심지어는 수업시간 중 들려온 전화를 아무거리기 없이 받고 통화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행동을 보고 우리는 불쾌감을 느껴야 하지만 이미 그것에 대해 무감각해진 것 같다. 그러나 분명 고쳐야 하는 것이기에 조금만 서로를 위해 배려하고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이다.
 편리한 줄만 알았던 핸드폰이 서로를 불쾌하게 만드는 것 같아 안타깝다.
 더 이상 불쾌감을 주는 기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일 것이다.
 박एस더 (사범대 역사교육1)

힘겹게 얻어낸 학부실

야간강좌 경영학부가 설립된 지 2년째 되는 올해 입학한 새내기인 나는 지난 1 학기동안 우리들의 자치공간인 학부실이 없이 대학생활을 보냈다. 그동안 학부실이 마련되지 않아 불편한 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과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부속의 4개 과실에 무작정 들어가기도 쉽지 않고 동기들이 모일 마땅한 공간이 없을 뿐 아니라 뚜렷한 소속감도 느끼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을 먼저 절감한 선배들이 학부실 마련을 위한 야간강좌 자주화 운동을 단행한 것이다.
 비록 학교와 운영회가 합의하긴 했지만 그동안 흡연실을 애용했던 학생들에게 미리 알리지 못해 아쉽고 미안하기도 하다.
 흡연실이 육상으로 이전돼 담배 피우러 가는 길이 멀어져 불편하더라도 이러한 우리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하고 격려해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한다.
 힘겹게 얻어낸 학부실인 만큼 소중히 생각하고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이 공간에서 서로 부대끼면서 지내게 될 동기와 사랑스런 후배들의 모습도 그려본다.
 조중환 (경영대 경영학부1)



신종민 (인문대 국문3)

얼마나 오래 됐을까
 불나방은 림프신
 문살을 두드리는데
 귀뚜라미 다시 울어대는데
 누이는 책상에 앉아
 이미 떠난
 연애편지를 잡고 있다.
 새끼손톱 고드머리
 자꾸만 자꾸만
 봉숭아가 젖고 있었다.

서울 ☎ : 2260-3491·2
 FAX : 2279-1270
 경주 ☎ : (054) 770-2058
 FAX : (054) 770-2057
 문의·제보 : dgupress@dongguk.edu
 하이텔 ID : dgpress
 누리우체 ID : 동대신문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시, 만화를 기드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알림
 이번호부터 만평·만화 작가가 임소희(미술4휴학)에서 정송이(국고4)로 바뀝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동악광장

목격글

축하합니다

△Kart Mac 개강총회 축하합니다. -machu 00
 △고리미 누나 Happy birthday to you. △동악 최고의 걸딱이 자룡선배 생일 축하해요~ -걸딱돌
 △체고 '96최재성. 무도회장 즉석 만남 성공 추가한다. 근대 클럽커피도 CC나?? △이길상과 이진아의 200일을 축하. △홍재우군과 백인영양의 9월 22일 결혼 축하합니다. -이민성
 △얼마나 있으면 있을 함치훈양과 그 남자 친구의 200일을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지현아, 힘들게 시작한 공부 △Cafe.daum.net/goodbyehomerun/ 탄생을 축하합니다. -리명히터
 △20일, 토마토의 생일을 축하해요. -Appho dite

△승재오빠 결혼 축하해요. -98 핵심권력
 △나 15일 생일이다. 축하해줘.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농활 다녀오신 생자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생자장
 △병민오빠 이번 연주회 정말 애쓰셨어요. 합주단 여러분들도~ -여울인
 △현준형과 인선양 생일파티가 잘 될 것 같습니다. 95&98경영인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기영이랑 은희가
열심히하십시오
 △블패야총 노래패 '차돌' 첫 데뷔전인 남산골 한마당 준비 열심히 하십시오. -차돌기 짝꿍이
 △사랑하는 지현아, 힘들게 시작한 공부 △Cafe.daum.net/goodbyehomerun/ 탄생을 축하합니다. -리명히터
 △야총 대축제. 남산골 한마당 준비 잘합시다. 율동패 톨폴 만세! -청일점
 △신사! 헌반반 더 열심히 합시다. -순

은방글

축하합니다

△미희야! 23번째 생일 축하해!
 △준건아, 200일 축하한다. -한터 18기
 △경일아, 선영아~ 생일 축하해. -불패
 △경영(야) '94 김정환 검찰사무직, '94 차동준 101경비단(청와대) 합격을 축하한다. -동기일동
 △상환아! 취지 축하한다. -공철
 △영분00. But 4학년. 이승훈 과대 당선 추가~
 △미희야 23번째 생일 축하해. 근애, 세화
 △경훈 100일 추가하~
수고하셨습니다
 △始林 28호 발간축하합니다. 민정이 우습이 수고 많이했어. -전투경찰(?) 전편집장

동국관 학생식당 차림표

월	참치우거지탕(1500) 닭조림백반(1500) 비빔만두(1300)
화	비지락수제비(1500) 불고기덮밥(1500) 오징어비빔밥(1500)
수	양지탕(1500) 해물볶음밥(1500) 돈육강정(1500)
목	순두부찌개(1300) 닭고치구이(1500) 제육김치볶음(1300)
금	쇠고기국밥(1500) 카레라이스(1300) 비엔나이쨈덮밥(1500)

(단위:원)

상록원 학생·교직원식당 차림표

월	떡만두국(1500) 피자토가스(1500) 참치김치덮밥(1500) 고등어무조림백반(3000)
화	닭개장(1500) 소고기볶음밥(1500) 해물덮밥(1500) 김치불고기(술밥)(3000)
수	부대찌개(1500) 개살간통기(1500) 생이쨈비빔밥(1500) 우거지갈비탕(3500)
목	사골곰탕(1500) 헬볶음밥(1300) 떡볶이백반(1300) 황태물대기(3000)
금	돈창조림덮밥(1500) 하이라이스(1300) 치킨샐러드(1500) 함박스테이크(3200)

(단위:원)

경주캠 학생회관 식당 차림표

월	근대국(1300) 양송이볶음밥(1600) 짜장덮밥(1700) 새우까스(1800)
화	미역국(1300) 참치이쨈비빔밥(1500) 오징어제육볶음(1600) 스테이크(2000)
수	북어채국(1300) 김치볶음밥(1600) 닭갈비볶음밥(1700) 잡채밥(1800)
목	배추국(1300) 햄이쨈볶음밥(1600) 불낙덮밥(2000) 함박스테이크(1800)
금	어묵우국(1300) 파파두부덮밥(1500) 쇠고기볶음밥(1700) 팔복채덮밥(1800)

(단위:원)

경주캠 원효관 교직원 식당 차림표

월	돈육카레소스·참치김치찌개(2500) 쇠고기덮밥(3500)
화	가지미우조림·사골우거지탕(2500) 생선까스(3000)
수	오징어도라지생채·추어탕(2500) 갈비탕(3500)
목	고추된장장아찌·육개장(2500) 김밥+칼국수(2500)
금	불고기·새알미역국(2500) 비빔밥(2500)

(단위:원)